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August 2019



contents

발행인단신

- 4 진실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리더십칼럼

- 6 10년 후에 나는, 교회는 그리고 세계는...

안나의 골방

- 8 주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터키는 지금

- 10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4월까지 러시아 미사일이 완전히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 11 터키는 난민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14 터키, S-400 구매 규탄 미국 결의안 수용 불가

사역소개

- 15 라스트콜(The Last Call)
- 16 터키 아프간 난민학교 빅드림 스쿨

중동지역의 오늘

- 18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깃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공격
- 20 이란, 걸프만 해역에서 영국 유조선 억류
- 22 시리아 북부의 폭력사태가 심화될 경우 20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피신할 수 있다.

파트너 칼럼

- 24 난민 무슬림 선교는 한국교회 이슬람권 선교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Mission Frontiers

- 27 통합을 통한 제자삼기

2019년 8월 30일 통권 108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2019 교회개혁 리서치 트립 안내 (p.32)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손경일 목사 (새누리 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고희목사 (뉴욕하안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형천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목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방주선교회)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오목사 (배달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연합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투스선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페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혁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영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예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떡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터키와 특별히 터키의 모든 교회(터키, 난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 터키 현 정부의 여러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행 4:24-31)!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44유닛의 교회개척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쿠르디스탄에 SWM 선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현지 일꾼들을 예비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소서! 특별히 예지디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역대하 7:14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땅과 민족이 주님의 고침과 회복을 받게 하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진실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이유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고 우리의 원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용서와 화해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형제의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마 18:15). 죄를 범함으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증인과 교회의 도움을 받아 먼저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8:16-17).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아니한다(unforgiving)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대결입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종교와 종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저주, 분열과 대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민족 가운데 사상과 이념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파와 우파,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불신, 가진 자와 빼앗으려는 자 간의 수많은 고통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갈등, 소수민족의 어려움, 자녀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 교회의 분열, 지도자들을 향한 실망과 불신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첫 단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매고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를 믿는 모든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매고 있는 잘못된고 불법적인 것들
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매고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얽힌 문제들과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풀어야만 합니다.

셋째, 연합하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은 연합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연합의 중
요성은 바로 그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연합을 이루어 합심하여 기도하
는 의미는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일치하여 동의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
기 위해 주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
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 연합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죄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막힌
관계를 해결하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이 가능케합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터키와 쿠르드,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과 국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
도해주세요. 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열방과 민족들 가
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8-20)





10년 후에 나는, 교회는 그리고 세계는...



글: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원리'가 됩니다. 원리란 결과의 이유이며 어떤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이 원리로 설명 가능한 상태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원리로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불변의 원칙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땅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은 농부의 땀의 결과입니다. 소산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은 소산을 내어줍니다.

~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이 법칙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원칙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꼼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세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시대적, 상황적, 문화적인 분석에 의하면 다음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합당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합당함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분석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정말 보여지는대로 분석한 합당한 분석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합당한 이 분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맞는 원칙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에 대한 분석은 많으나 대안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변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소산을 얻는 법입니다. 오늘날 다음세대가 어려운 이유는, 얻을 소산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었더라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과거의 현재형입니다. 현재가 없다는 것은 과거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모두 포함된 신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정직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꼼수도 땅에 정해진 법칙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심고, 돌보고, 기다리고, 또 심고, 돌보고, 기다리는 충



성된 농부의 10년은 이미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한국은 절망과 같은 황무지 너머의 10년을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심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전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 같은 땅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힘이 없어 서러웠고 억울했지만, 절망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6)**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키며 위기의 이스라엘을 보호 했습니다. 법조, 교육, 경제, 정치, 과학, 종교의 영역에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읽어내야 합니다. 숨겨진 다윗을 찾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도자 사무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사울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아 그만 울고 이제 빨병에 기름을 채워 내가 찾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아니라, 10년 후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아야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한 '전환(shift)'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을 키워내는 '안디옥교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 리더가 배출되는 교회, Mission Base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속한 토양이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땅의 소산은 없습니다. 중동지역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제를 넘어 '교육'을 기초로 한 사람 키우기

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안디옥의 플랫폼을 협력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경주를 완성할 선교에 최적화된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는 Mission Base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10년 후 나는, 교회는, 그리고 내가 속한 땅은 어떻게 될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0년 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 지역의 전환(shift)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구제를 넘어 10년 후를 변화시킬 리더들을 심고 교육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보해주신 골든타임에 모든 것을 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SWM 선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SWM 선교회가 언제나 전환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다가올 새 시대의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10년 후의 나팔을 부는 것이 외롭지만, 그 길이 바로 리더가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곡식 단이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안나의 골방 8월의 기도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Galatians 6:17, NIV

© GODpeople.com

주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맞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며
우리가 이기려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는
인간적인 감정과 논리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혈과 육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사단의 병기는 두려움, 불안, 분노, 정죄와 자기 연민들인데
혈과 육으로 반응하며 이기고자 할 때면 분노와 두려움,
불안 등 여러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나 사역, 일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음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지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승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옳음이 증명됨으로 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데서 부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인간적인 반응과 방법을 그칠 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승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신 주가 사시고,
매일매일 혈과 육으로 사는 삶은 죽어지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이기신 왕으로 사시도록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음성을 거절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나온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입에 자갈을 물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쇠하고
주님이 흥함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기를 더디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기려한다면,
결국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잠잠하십시오.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의 감정적 반응에
잠잠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변명한다고, 증명한다고 한 말들이
또 울무가 될 수도 있으니 잠잠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의 시간이
두렵지 않으며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레마로 다기와 우리 영을 강타할 때면
그렇게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어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4월까지 러시아 미사일이 완전히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TM (7/16/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양카라, 터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4월 3일, 터키 양카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아쿠유 핵 산트랄 기공식에 참석. 라시트 아이도간/아나톨루 에이전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에 전달된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2020년 4월까지 완전히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터키가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함에 따라 나토 동맹국 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터키에 제재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르도안은 2016년 실패한 쿠데타 3주년을 맞아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미 여덟 대의 비행기에 러시아 방어 시스템의 일부를 장착했고 더 많은 비행기들이 러시아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 허락을 받아, 2020년 4월까지 비행기에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장착될 것입니다.”라고 에르도안은 군중들을 향해 말했다.

미국 관료들은 터키가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함으로써 CAATSA로 알려진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터키는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터키가 더 이상 F-35 부품을 만들거나 주문했던 제트기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르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가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에 따라 가하는 제재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이 분쟁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S-400 시스템 구매에 따른 터키와 서방 동맹국들 간의 긴장이 최근 몇 달 동안 고조되고 있고 나토 동맹국들이 취한 행동은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Source: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7/16/erdogan-says-russian-missiles-will-be-fully-deployed-by-april-2020/>〉





터키는 난민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글: 나란 코카
(휴리에트 데일리뉴스, 이스탄불)
(6/15/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시리아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파노스 무미스 유엔 지역 인도주의 조정관은 휴리에트 데일리 뉴스와 가진 스카이프 인터뷰에서 "터키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시리아 북서부의 이дли리브주는 난민이 200만명에 이를 수 있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최대 80만여명의 난민밖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미스는 터키를 열흘간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터키 남동부 가지안텨프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긴장감의 현장인 전쟁으로 파괴된 터키의 마지막 반군 거점인 이дли리브에서의 현재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관리들과 회담하고 있다. 무미스는 이дли리브의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дли리브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중 절반은 내부적으로 실항민입니다. 정권이 한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전사들과 가족들은 이дли리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입니다.

4월 24일 이후 매일매일 급조된 폭탄 공격, 공습, 지상공격 이런 것들이 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25개의 병원과 30개의 학교가 폭격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약 3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새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고, 이 사람들은 이дли리브 남쪽에 있는 모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병원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무미스는 시리아군이 일부러 병원을 공격했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





니다. 그런데 이дли브에 대한 안보리의 브리핑이 열릴 전 뉴욕에서 열렸는데 그때 병원 폭격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도 정부 소유의 병원 두 곳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80만명이 넘는 난민에 대처할 수 없다



파노스 무미스 UN 인도주의 조정관

무미스는 유엔이 곧 닥칠 새로운 난민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дли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땅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곳은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텐트, 음식, 물, 의료용품... 80만 명의 난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만일 난민의 수가 200만명으로 사태가 커지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터키는 터키와의 국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인도주의적 작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인구의 생명줄입니다."

터키 '이дли브에서 적대행위 중단'의 열쇠'

그는 터키 관리들과의 대화의 활력을 강조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터키 재난 및 비상 관리 당국] AFAD, 키즈글레이와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리가 정치적 수준에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스타나 회담의 보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입니다. 터키는 적대감의 중단을 보장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쟁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터키에 대한 국제적 지원 부족

무미스는 터키가 난민 위기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국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원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터키는 시리아인들을 환영하며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단순히 시리아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돕습니다."

무미스는 또 터키가 시리아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나눴다. 그는 "저는 지난 30년간 국제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 가자, 콩고 등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인터뷰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터키에서 시리아인들을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보살피고 대하는 영혼을 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카드를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터키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출처 : <http://www.hurriyetdailynews.com/turkey-doesnt-receive-enough-intl-support-in-refugee-issue-un-official-144181>〉





터키, S-400 구매 규탄 미국 결의안 수용 불가

글: 예니사팍 (6/11/2019)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 외무부는 6/27일(현지시간) 앙카라-워싱턴 동맹에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미 하원이 6/ 24일 승인한 '미국-터키 동맹에 대한 우려 표출' 결의안은 터키와 미국 동맹의 뿌리 깊은 우정과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외무부 성명에서 밝혔다.

"터키의 외교 정책과 사법 제도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승인한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동맹간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나가면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 인수 결정을 규탄하고 앙카라에 조달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체제는 양국간의 관계를 미궁에 빠트렸다. 터키는 미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 구매를 위한 장기간의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2017년 러시아의 S-400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나토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로부터 S-400 시스템 대신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라고 터키에 권고했다.

터키는 미국의 패트리엇츠 매각 거부로 인해 다른 판매자를 찾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러시아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더 나은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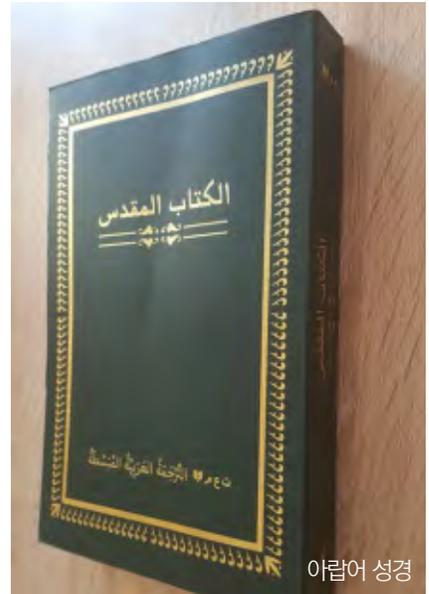
<출처: <https://www.yenisafak.com/en/news/turkey-slams-unacceptable-us-resolution-condemning-s-400-purchase-3482946>>



라스트콜 (The Last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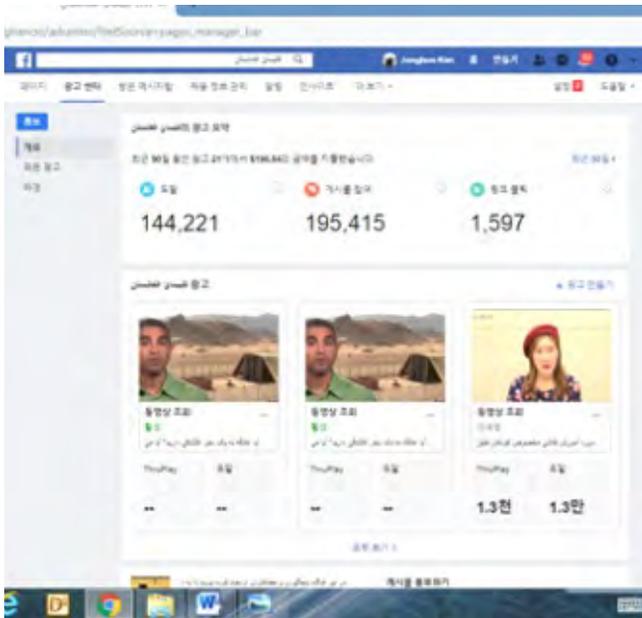
글: 김종훈 사역자(앙카라)

라스트콜은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세 번째 초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아프간 및 시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했지만 거절하거나 심지어 사역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난민의 상황이 되면서 복음의 초대에 순수히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아프간 및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성경을 홍보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5개월째 사역 중입니다.



아랍어 성경

터키에 약 30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라스트콜을 통해서 약 5만 명이상의 난민들에게 복음 동영상이나 성경 홍보물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 소수지만 성경을 원하거나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의 반응을 받았습니. 현재 현지인 스텝 포함 3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더 자주 홍보를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페이지 이름은 아프간 교회)

터키의 50개 도시에 아프간 난민들 교회는 10개 이하입니다. 이들의 교회가 없는 40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라스트콜의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아프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복음의 관심자를 찾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앙카라에 사무실을 구하고 5명의 온라인 전문 사역자를 배치하고 더 집중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터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프간에서도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허드슨 동역자와 협력하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 스텝들이 이 일을 시작했으며 350만 명의 터키의 시리아인들에게 아랍어 복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라스트콜(일명 난민 BCC사역)을 통해 터키의 아프간,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접하고 반응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터키 아프간 난민학교 빅드림 스쿨

글: 김종훈 사역자(양카라)

저희는 2013년에 이란에서 터키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난민 사역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5년에는 아프간 난민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난민들에게 영적 사역(교회) 외에 NGO 사역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난민뱅크” 난민 사역 조직을 개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과부도 돕고 어린이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크룩칼레라는 도시의 아프간 난민의 집을 방문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헌신하셨던 박정숙 사역자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3개 반으로 진행되었던 영어 학교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17년에는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 가을에 안식년에서 돌아왔을 때 안식년 중에 배우게 된 영어를 통한 난민 사역을 터키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10월에 아피온이라는 도시에서 무함마드 사역자와 함께 1호 영어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과 부모들이 등록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선교지를 방문하러 오셨던 한 권사님이 오픈식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피온 영어학교 예산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역의 걸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2호 영어학교가 문을 열고 지금은 9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 4월에 크룩칼레 도시에 하르팍이라는 빅드림 스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5명의 난민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란 교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박 권사님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라서 더 빨리하고 싶었지만 가장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반 총 25명의 아이들이 영어와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빅드림 스쿨은 정식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졸업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빅드림 스쿨은 건물이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빅드림 스쿨은 잃어버린 난민 아이들의 꿈을 되찾게 하는 Dream Maker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드림은 방과 후나 주말에 수업이 있습니다. 빅드림은 교사의 집이나 교회의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다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도인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교회의 리더들과 아이들과 부모들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빅드림의 중점 수업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터키어나 다리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5년 이상으로 길어진 난민 생활은 어찌면 아이들이 아동기를 터키에서 보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교나 대학도 갈수 있습니다. 터키의 국제 대학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난민이지만 국제화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재

건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빅드림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난민 아이들 가운데 실천하고 Dream Maker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현재 9개 학교에서 약 230명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는 1개에서 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는 15명 내외의 학생이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시간은 1회에 2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시간 또는 8시간 정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학교마다 Big Dream Camp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아트미션(사단법인)을 통해서 그림 그리기 동영상을 이란어로 더빙하여 아이들이 교실에서 전문 선생님께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콘텐츠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영어를 바탕으로 종합 예능 및 기술 학교로 발전 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사는 난민들입니다. 현재 이란과 아프간 난민 신자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빅드림 본부에서 약간의 교사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빅드림 본부는 필요한 예산을 개인 후원자나 단체 후원자를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따로 모금 행사는 하지 않고 이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도 2곳의 학교에 후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빅드림이 필요한 것은 재능 기부자들입니다. 여름과 겨울 또는 언제든지 터키의 학교를 방문하여 재능기부(영어/미술/음악/연극/컴퓨터/코딩)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공격

글: 린디 로워리 (오픈도어스)
번역: 한국 번역팀

중동 오픈 도어스의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전략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타나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사건과 관련된 몇가지 사건들이 게재된 것을 보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례 1:

26세인 이집트 크리스천인 페디 유세프 토다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하여 이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토다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공격적 메시지를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사과하는 동영상 올렸다. 그러나 아흐난 엘-나사라에 있는 토다리 가족의 집에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의 부모님은 친척 집에 숨었고 급습한 폭도들은 토다리 가족의 소지품을 파괴했다.



폭도들이 토다리 가족의 집을 급습하여 소지품을 파괴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몇 명의 공격자들을 체포한 후, 그 상황은 진정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은 토다리와 그의 형제 그리고 두명의 삼촌들을 체포했다. 그 이후, 토다리의 사촌들은 풀려났고 토다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성직자를 포함한 지역 크리스천들은 토다리의 결백함을 보증했다. 소리만 신부는 오픈 도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페디 토다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게시할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흐름

아흐난 엘-나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오픈도어스의





국장은 말했다.

2018년 12월, 월드워치모니터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슬람을 모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크리스천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오픈 도어스는 이와 같이 페이스북등을 통해 크리스천을 핍박하기 위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전술들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구에 앞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스의 국장은 페이스북 해커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살라피스트가 운영하는 그러한 틀에 맞추고 있고 그들은 해커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 도어스 분석가인 마이클 보쉬는 지금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들과 맞추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크리스천들이 공격당하고 있고 그들의 집이나 소유물들은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상황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범죄 혐의가 있는 크리스천을 체포하거나 기소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로 기소될 것과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나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야함을 기억해야한다.

<Source: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stories/how-islamic-extremists-are-using-social-media-to-target-christians/>>





이란, 걸프만 해역에서 영국 유조선 억류

글: BBC뉴스 (7/19/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이란 유조선이 억류된 데 이어 이란은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압수했다.

중동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인 걸프만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후 이란과 서구(특히 영국과 미국) 국가 사이에 위기가 발생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무엇에 관한 위기인가?

최근의 긴장의 배후에는 이란과 미국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서로 점점 더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최근 활동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이란은 미국이 자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적 압력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한다.

오만의 만에서 5월에 네 대의 유조선이 폭발하면서 위기는 실제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란은 자국군이 그 선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미국의 비난을 부인했다. 그 이후로, 두 대 이상의 유조선이 공격당했고, 미국과 영국은 이 지역에서 해군 병력을 증강했으며,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사건에서, 이란은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영국군에 의해 자국 유조선 한 대가 억류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치했다.

왜 이러한 위기가 문제가 되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걸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몇몇 국가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상으로 긴장은 호르무즈 해협 사용을 위협한다. 세계 석유의 거의 5분의 1이 이란





남쪽 해안에 있는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 그렇기에 국제 선박이 방해받거나 그곳에서 차단된다면,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그것은 유가의 급등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위기가 전쟁으로 번진다면, 그 결과는 재앙일 것이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걸프만의 긴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또 다른 위기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 동안, 국제 사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란 핵 활동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란은 자국의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이것을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의 대가로 핵 활동을 제한하기로 2015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결점이 있다며 합의를 철회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고, 계속 강화하면서 이란 경제를 강하게 타격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격분하여,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몇몇 주요 핵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중단했고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그 협정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측통들은 걸프만 주변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선박 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란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것이 영국과 무슨 상관인가?

우선, 그것은 걸프만에서 미국과 이란이 시합에 나가지 않고 새도우 복싱과 같은 입장에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브롤터 정부가 유럽연합(EU) 제재를 위반해 시리아로 석유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이후 7월 초 영국 해병대가 이란 유조선을 지브롤터 인근 해역에서 억류하는 것을 도왔다.

이란은 영국군의 불법 해적 행위라고 말하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란 유조선이 석방되지 않으면 영국 유조선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영국은 영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걸프만에 추가 군함을 배치했다. 그러나 금요일 이란은 그 위협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국제 해양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고 영국은 이를 반박했다.

이란은 선박과 12명의 승무원을 모두 억류하고 있어 위기를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49069083>>





시리아 북부의 폭력사태가 심화될 경우 20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피신할 수 있다.

글: TM (6/10/2019)

번역: 한국 번역팀



2018년 10월 15일, 민족해방전선(NLF) 소속 시리아 반군 투사가 이들리브 지방 인근 서부 알레포의 알 라시딘 지역에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 시리아의 이들리브에 있는 지하드주의자들은 마지막 반군 보루인 '완충지대'를 떠날 예정이었던 시한을 지키지 않아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에 새로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Aaref WATAD / AFP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구호 자금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면서 전투가 격화될 경우 최대 20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피신할 수 있다고 유엔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군은 이미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공습과 지상 전투로 마지막 주요 거점에서 반군을 압박해 왔다. "만약 이것이 계속되고, 그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는 수십만, 백만, 이 백만 명의 사람들이 터키 국경을 향하게 될까봐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파노스 모움트지스는 말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발생한 이번 공격은 주로 이들리브 지방 남부 하마와 리타키아의 인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 세력간의 가장 치열한 충돌이 발생했다

모움트지스는 제네바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터키간의 교전 해결을 위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민간인 지역, 인구 및 도시 지역이 있는 지역의 병원과 학교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르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라고 모움트지스는 말했다.

구호단체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쟁 당사자들과 자신들의 위치를 공유하도록 권면받아 왔다. 그러나 병원들에 대한 공습이 거듭된 이후에 많은 구호 요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불신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대 재앙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몇 달 전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움트지스 사무총장은 유엔이 올해 시리아 내 인도적 활동을 위해 33억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5억 달러만 지원받았을 뿐 지원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6/10/2-million-refugees-could-flee-to-turkey-if-violence-in-north-syria-intensifies-report/>>



난민 무슬림 선교는 한국교회 이슬람권 선교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글: 김바나바 사역자 (터키 T도시)

2013년 6월 T국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T 도시로 갈 때는 그 도시에서 5년 안에 회사를 세우고, 동부 쪽으로 가서 회사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T 도시를 새로운 사역지로 결정하고 난 후에 몇몇 현지 리더들은 T 도시로 가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T 도시에 도착해서 며칠 후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가서 현지 리더들이 왜 말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 외국인이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비자를 줄 수 없으니 떠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T 도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T국 회사와 난민 회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매년 비자 때문에 이민국에 가서 취조를 당하는 것은 별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T 도시에 개척한 새생명 회사를 현지 리더에게 이양하고 다른 도시로 갈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전도와 제자 양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거의 되었을 무렵 비자 연장이 거부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추방 당하는 동역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우리가 추방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봅니다. 일주일 이내에 떠나라는 통보를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겨우 조금 안정되어 제자 양육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나면 양들을 누가 돌보고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께 때에 맞춰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잠언 16:9)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잠언 19:21)

지금은 어느 때인가? 어느 시대인가?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절대 이념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여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속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없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버리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 의식과 시대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역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슬람의 확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슬람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온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슬람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관심을 갖고 배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슬람의 확장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슬람 나라 백성인 무슬림들을 난민과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온 열방으로 흘리시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들의 숫자는 대략 6,850만 명입니다.(2017년 유엔 통계) 우리 바로 이웃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도 무슬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추수하라고 무슬림들을 열방에 뿌려 주고 계십니다. 무슬림 난민들의 복음 수용성은 거의 90%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난민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계는 유럽처럼 이슬람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을 복음화할 것인가 아니면 열방이 이슬람화 될 것인가를 두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9장의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안락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요. 십일조도 잘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여름에 아웃리치도 갑니다. 이만하면 됐지요'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그럼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처럼 내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특징은 절대 이념을 거부하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비적이고 폐쇄적인 이단이나 요가, 명상, 뇌호흡 같은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이슬람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행하는 삶,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삶으로 보여 줄 증거가 있는 삶을 살면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세대가 주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접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합을 통한 제자삼기

글: C. 앤더슨
번역: 한국 번역팀

우리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우리에게 “여기에 앉아보세요.”라고 안내했다. 그 방은 아주 작고 어두웠다. 우리는 낮은 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굽혀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우리는 물었다.

그의 아내는 “의사가 제 남편에게 신장에 돌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한지 며칠이 지났어요. 제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 나눠주었다. 우리는 그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신장에 있는 돌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온전케 되기를 명령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나눈 후, 다른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며칠 후, 우리가 그들의 작은 집에 방문했다. 그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은 밖에 서서 대나무 매트를 고치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주 좋아보이네요.”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준 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저는 치유되었어요! 제 몸의 돌이 제거되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때 치유를 받은 사람은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매주, 그들이 사는 집 앞의 작은 뜰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 위해 왔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항상 제자 삼는 사역의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리 트루즈데일은 세속주의의 위협에 대해 썼다.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제자 삼는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반 초자연주의 때문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그는 세속주의를 퇴치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더욱더 큰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서구에서 만큼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비 서구 세계에 있는 이들은 이적과 기사에 대해 더 개방적이다. 이들에게는 전형적인 제자의 삶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통합하는 것이 훨씬 쉽다. 많은 나라에서, 80-90퍼센트의 사람들이 치유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에서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있어도 이것이 항상 제자 삼는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이러한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더라도 제자 배가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제한된 성장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

둘 다 필요하다

제자 삼는 사역의 전략과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둘을 아주 멋지게 조합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삼는 사역과 함께 이적과 기사를 멋지게 통합하여 사역을 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만이 아니다. 둘 다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가?

1.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다. 37번의 기적을 기록해 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매일의 삶의 스타일이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자연적인 기적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보통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왜 주저하는 것일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주저함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 아픈 기억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아픈 기억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또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개입과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희망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망에 책임을 느껴야한다.

우리는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 비록 극적으로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기적을 통해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크리스 갈라노스는 그가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권했다.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나누게 한 후,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길 기대해야한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 불편해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실제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 나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것임을 인정해야한다. "왜 두가지를 함께 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즉 예를 들면 의료적 치료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인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더불어 약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약이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막 16:17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되어있다. 이 말씀에서 이러한 표적이 '아마도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우리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했는가?





2. 예수님은 제자를 배가시켰다. 그는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풀어놓으셨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위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예수님은 3년간 이 땅 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행하셨다. 이 사역의 기간을 보면 아주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가 떠날 것을 아시고 계셨다. 그의 장기 계획은 의도적인 배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만났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보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준비시키셨다. 그 이유는 그가 곧 떠날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눅 9장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할당해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마을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라고 알려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사역을 어떻게 하시시지를 직접 본 후,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사역을 행했다. 사역을 행한 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 나눴다. 그리고 이 후, 지속적인 훈련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의 제자도는 무작위가 아니라 반응적이었다. 그는 제자훈련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전 세계의 제자 삼는 운동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다.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제자훈련이 제자 삼는 운동에서 필요한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경험을 너머

댄과 그의 아내는 인도의 교회 개척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제자 삼는 운동을 그들의 지역에서 시작했다. 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댄으로 인해 감명을 받았고 그가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대화를 계속 해나갔다. 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그들이 새로운 도시를 개척할때, 심장마비로 막 죽은 한 여성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기적으로 살아났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이후, 댄이 자신들의 집에 오기를 원했고 그결과 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사역은 성장해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첫번째 세대의 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댄이 사역 원리에 대해 더 많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는 제자 배가를 위한 계획을 개발시켰다. 그는 모든 사역을 자신이 하는 것보다는 훈련자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배웠다. 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 그가 혼자 기도하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훈련생들이 이것을 시행했을 때, 그들 역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훈련생들이 다른 제자들의 그룹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어떻게 새신자를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배워나갔다. 이를 통해 이들을 또 어떻게 강력한 제자 삼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나가야하는 지를 배워갔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의 제자도는 계획없이 무작위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제자도 훈련을 습득한 후,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제자삼는 사역은 급격히 성장해 나갔다. 다 세대간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댄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계획이 없다면, 성장은 지도자의 능력의 한계에 제한되어지는 것이다. 이때 제자가 배가되는 그러한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둘을 통합 해야함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 병든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맞보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포함-이 더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비전” 을 만들고 제자도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져도 위의 두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하라. 믿음을 키우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에게 없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팀에 합류하여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 두가지 접근이 통합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으라.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Source: <https://www.missionfrontiers.org/issue/article/the-marriage-of-excellent-strategy-and-the-supernatural>〉

앤더슨은 현장 경험이 있는 지도자이다. 지난 27년간, 그녀는 YWAM 미션 프론티어와 함께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다. 앤더슨은 국제적인 그리고 토착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고 코치하는 사역을 통해 제자 삼는 운동을 해나갔다.





2019 교회개혁 리서치트립안내

터키에서 진행되는 교회개혁운동과 난민돕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미국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일정(터키시간): 2019년 10월 28일(월)~11월4일(월)

- 10/28(월) 미국출발
- 10/29(화) 한국출발
- 10/30(수) 앙카라 방문
- 10/31(목) 터키 동부 아라랏산(노아방주) 반 방문
- 11/1(금) 반, 아크다말 섬 Holy Cross 교회 방문, 디야르바크르 이동
- 11/2(토) 디야르바크르 방문, 하란 / 수루치 / 가지안텝 방문
- 11/3(주일) 가지안텝 교회, 안디옥 방문, 동굴교회
- 11/4(월) 안디옥 - 이스탄불 - 미국.한국으로

등록문의: 김영진 간사(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010.8632.0278)